

산학협력·창의적 강의로 사회복지 발전

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부 사회복지협의회와 협정식 ... 실용복지 강의 '호응'

경동대학교 사회복지경영학부(학부장 한성수 교수)가 산학협력 활동과 창의적 강의 개발 등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부는 지난 17일 낮 12시30분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회장 최근성)와 산학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이날 협정식에서는 두 기관의 상호 홍보 노력과 복지분야의 정보공유, 인적·물적 교류에 협력할 것을 합의했다.

또 보유 시설물의 상호 공동 활용, 재학생의 인턴 및 현업 근무 등 상호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산학공조를 도모해 새로운 21세기 경쟁력 향상을 위한 동반 관계로 가자는데 합의했다.

경동대는 이와 별도로 한국복지경영개발원과 산연협력 협정서 조인식을 가졌다. 복지시설자문과 경영컨설팅 지원 협력, 복지시

설 및 사업의 효율적인 홍보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 협력, 복지시설의 체계적인 경영 관리에 필요한 창의적 아카데미 교육 협력, 복지시설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 협력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성수 사회복지경영학부장은 "지역의 사회복지 활동에 대해 실질적 자문과 지원을 통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복지경영 안정화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부는 같은 날 저녁 7시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방식의 창의적이고 이색적인 강의로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



경동대 사회복지경영학부는 지난 17일 고성군사회복지협의회 산학협력 협정식을 가졌다(사진 위). 우측은 LARA 음악 교실대표인 이주영 강사가 '사회복지와 음악치료'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는 모습.



을 받았다. 이번 강의는 기존의 방식을 탈피해 전문 CEO를 초빙해 사회에서 실용화 할 수 있는 실용복지를 배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의에서는 LG그룹의 전자사업부장으로 근무하는 정한구 사무가 나와 '바람직한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주제로 바람직한 직장생활 바람직한 태도에 대해 교육했다. 이어 LARA 음악 교실대표인 이주영 강사가 '사회복지와 음악치료'라는 주제로 '음악의 효과'에 대해 특강을 했다. 한성수 사회복지경영학부장은

"이번 강의를 계기로 일반적인 강의방식에서 탈피해 창의적인 강의로 전환시켜나가고 싶다"며 "반응이 좋은 만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 방식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승근 기자

'바다 사랑 그림대회' 참가자 접수

속초해양경찰서가 미래 해양강국의 주역인 어린이들에게 바다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해양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한 '바다 사랑 어린이 그림대회'를 개최한다.

속초해경은 오는 28일 고성군 화진포 해양박물관 광장 일원에서 '제6회 해양경찰청 바다 사랑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개최를 앞두고 참가자 접수에 나섰다.

영동지역 초등학교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이번 대회는 △아름다운 바다 모습 △오염된 바다 △바다로의 여행 등 바다를 주제로 한 그림그리기 대회가 진행된다.

참가신청은 5월 27일까지 학교나 유치원에서 단체 또는 개인별로 우편, 팩스,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033-634-2397.

한편 지난해 제5회 대회에는 약 2천여명의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뤘으며, 515점의 작품을 심사해 154명이 입상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교육지원청 컨설팅 장학지원 연수회 개최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 16일 오후 3시 초계학생 수련장에서 관내 컨설팅 위원 67명과 각급 학교 교감, 교무, 연구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컨설팅장학지원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수회 개최식에서 김경로 교육장은 컨설팅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년 동안 학교컨설턴트로 열정을 다해 활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개회식 후에는 공현진초등학교 김용근 교감이 컨설팅장학의 이론과 실제, 그리고 수업컨설팅에 대해 강의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을 빛낸 호국인물 [10]

독립운동가 이근옥(李根玉)

1884년 2월 16일~1959년 12월 28일

본적은 강원도 고성군(高城郡) 토성면(土城面) 운봉리(雲峰里) 280번지이다. 선생은 1919년 4월 중순경,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교암리(橋岩里)·운봉리(雲峯里) 동군(同郡) 죽왕면 오호리(五湖里)의 각 계

시판에 '충고동포(忠告同胞)'라고 제목을 붙이고, 조선의 해방은 파리강화회의에서 국제연맹의 원칙에 따라 민족자결의 의사를 표시하여 조선독립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부르며 시위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선동한 문서를 첨부 게시(揭示)함으로써 치안을 방해하였으며, 동년(同年) 5월 강원도 철원(鐵原) 일대를 중심으로 조직된 철원애국단(鐵原愛國團)에 가입하여 중국(中國) 상해(上海)에 있

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군자금을 조달하려고 활동하다 체포된 선생은 1920년 12월 2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으며,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출典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9集, pp 990~103

『강원도항일독립운동사(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 第 1卷, 光復會江原道支部, 1991年, p.423

『독립유공자공훈록(獨立有功者功勳錄)』, 7권, p.543

『대한민국독립유공자인물록(大韓民國獨立有功者人物錄)』, p.374

〈고성향토문화연구회 제공〉 (010-5373-2156)